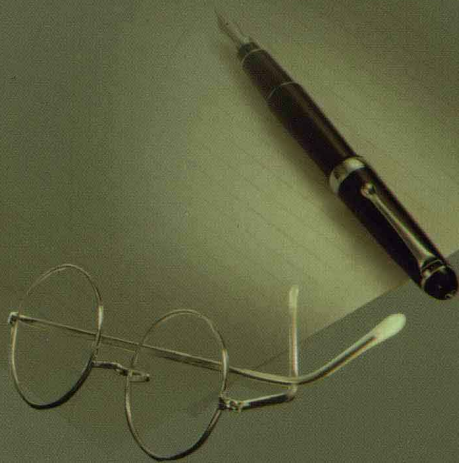


尹云杰记者文集

尹云杰

기자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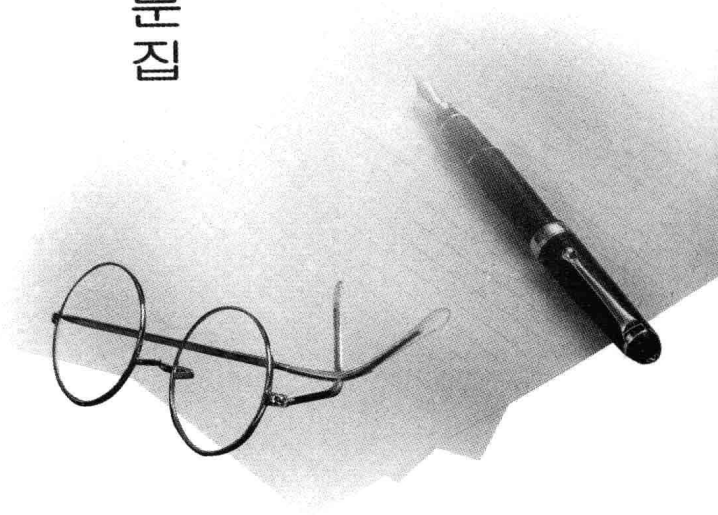


연변인민출판사



문 집

기자문집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전태균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尹云杰记者文集: 朝鲜文 / 尹云杰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6

ISBN 978-7-5449-0351-6

I. 尹… II. 尹… III. 新闻-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5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86798号

尹云杰记者文集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5.75 字数: 10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351-6 (民文)

版次: 2008年6月第1版 2008年6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2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책을 펴내면서

지난날 2천여편의 글들을 과학보급잡지, 방 송국, 신문사를 통해 발표했지만 과연 나의 글 이 중국동포사회에 그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또 가치있는 글들을 펴냈는지? 나를 키워준 윤동석 아버님과 신보옥어머님, 더우기는 오늘에 이르 기까지 물심량면으로 도와준분들에게 실망을 주 지 않았는지...?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 그 자 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국책을 타 먹으면서 더우기는 중국내 조선족이

알아야 할 권리를 위해 글들을 제대로 발표했는지...? 하는 의구심뿐이기때문입니다. 아무튼 잘된 글이든 잘되지 못한 글이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동료들에게 늦게나마 회보하는 마음으로 또 국내외의 수많은 동호인들이 책 한권을 펴내라 하기에 이번에 이렇게 책을 펴냄을 알리는바입니다.

필자는 지식청년으로서, 공안국 법의로서, 의사로서, 의학보급작가로서, 방송국기자로서, 신문사 기자로서 두루두루 지냈습니다. 이 기간 필자는 중국조선족의 교육,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진 연변에 몇십년 몸 담그면서 길림성은 물론 중국전역 더 나아가서는 조선, 한국, 일본, 로씨야의 동포사회를 취재하면서 보고 느낀 점 대부분을 할애해 “론저” 혹은 술평이라는 틀을 잡고 이 책을 펴내게 되었고 또 그러한 “론저”혹은 술평이 나오게 하기 위해 취재하고 느낀 점중에서 몇편의 글들을 곁들여서 책에 담게 되었습니다. 책을 펴내기 위해 지난날의 글들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언론사업에 종사하는 일개 민족의 언론인으로서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이 책은 비록 출판사 공개간행물입니다만 특히 이 책의 출판을 후



원해준 가야하정보과학기술유한회사 윤광진대표
리사의 가특한 마음에 감동되어 서점가에 책을
내놓지 않고 수요하는분들께만 무료로 기증한다
는것을 알리는바입니다.

끝으로 저의 일생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아껴
주고, 사랑해주신 고 양성철 연변대학 부속병원
이비인후과(연변정치협상회 부주석 겸 중국정치
협상회 위원) 교수, 리송영 전임 연변라지오텔
레비존방송국 국장 겸 길림신문사 사장, 연길시
김동수선생, 고 장문 흑룡강신문사 연변지사장,
홍만호 전임 흑룡강신문사 사장 그리고 리진산
현임 흑룡강신문사 사장 등 선배님들과 동호인들
에게 삼가 절을 올리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
립니다.

윤운걸

2008년 5월

예리한 눈길 절절한 생각

— 책머리에

흑룡강신문사에서 연변에 주재하고있는 윤
운결기자라고 하면 두 성을 끈끈히 이어주는 착
실한 “대사”이고 로씨야, 일본, 한국, 조선 등 주
변국가들을 제 집처럼 나드는 국제 “신사”이고 어
데서나 좋은 글감을 부지런히 물어오는 “꿀벌”로
통한다. 그만큼 동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방
면에서 신문기자로서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재능있는 기자가 마침내 오늘 책으로서의 스타트를 떼어 《윤운걸기자문집》이란 제목으로 묵직한 문집 제1권을 펴내니 동료로서 지우로서 반갑기 그지없다.

다산기자로 소문난 윤운걸선생은 수십년간 소식, 통신, 방문기, 실화 등 다양한 문체로 많은 기사를 써왔다. 그런데 이 책에 묶는 글은 고작 18편밖에 되지 않는다. 왜서일가? 곰곰히 살펴보니 저자의 투철하고 명확한 의도를 알만했다. 여기에 수록된 글은 거의 모두가 흔히 보는 소식 보도나 통신보도가 아니라 기자의 예리한 눈길로 사물을 관찰하고 그것을 서술한후 언론인으로서의 절절한 생각까지 그속에 녹여붙여 서술이란 “술”과 론평이란 “평”이 한데 밀착된 “술평”문이 었던것이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대로 진실하게 펴놓는다고 해서 무게있는 보도라고 할수 없다. 진정 무게있는 심층보도란 그런 복잡하고 가슴아픈 현상을 펼쳐보인 다음 그에 따른 답안과 대책안을 찾기 위해 기자의 고민끝에 터져나오는 목소리와 멀리 앞을 바라보는 그런 눈길이 미칠때만이 가능한것이다. 격변기의 진통을 겪고있는 오늘 우리 민족 사회의 현황파악에 대한 보도들은 더구나 그러한 엄격한 요구가 제기된다. 그러자면 우

리 기자들은 비교적 높은 이론적수량이 구비되어야 할것이다. 올바른 견해와 주장을 떳떳이 피력할수 있는 리론이 안받침되어야 중요한 발견과 심각한 투시력이 가능하기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국외나들이로 진통을 겪고있는 연변조선족”, “한국초청사기 법률구조대안은 없을가?”, “중국조선족과 한국인간의 갈등 ABC”, “민족교육의 허점은 어디에” 등 술평들은 민족의 언론인이란 사명감이 피와 살에 스며들 성숙된 기자가 아니고서는 쓸수 없는 글이다.

“글이 그 사람이다”는 말이 있다. 이는 글을 쓴 사람의 생각과 인격이 그 글속에 녹아있기때문일것이다. 그래서 기자로서 독자들에게 환영받는 좋은 글이 나오려면 역시 우선은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 하고 다음은 사물이나 현상을 진솔하게 볼수 있는 밝고 예리한 눈이 있어야 하고 머리엔 항상 “왜서?”, “그렇다면?” 하는 물음표가 떠올라있어야 할것이다. 이 책의 글들을 읽으며 느끼는바이다.

분주한 사회활동가인 윤운결기자는 사람만나기를 특별히 좋아한다. 그의 대부분 일과는 사람을 만나는것으로 시작해서 사람을 만나는것으로 끝나는듯싶다. 그래서 기자직업은 윤운결선생의 천직일것이고 또 바로 그래서 그의 붓끝에서는



색다르고 맛다른 글들이 샘물처럼 흘러나오는것 같다.

첫 기자문집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줄을 세워놓고있을 다음의 저서들을 기대해본다.

박일

2008년 5월 할빈에서



차례

책을 펴내면서	
예리한 눈길 절절한 생각	
— 책머리에	
1. 민족의 부흥과 언론인의 사명.....	1
2. 중한관계에서 중요작용을 하고있는 중국조선족	
— 동아시아경제공동체형성에서 중추작용을 할 중국조선족.....	24
3. 조선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	
— 연변대학 정판룡교수 인터뷰.....	36
4. 조선족이동원인 및 우리의 자세.....	46
5. 국외나들이로 진통 겪는 연변조선족	
.....	56
6. 재한조선족사회 믿음과 갈등 엇갈려	
.....	66
7. 민족교육의 허점은 어디에	
— 연변대학 교육심리학부 황형규박사 인터뷰	
.....	72
8. 중국조선족과 한국인간의 갈등 ABC	
.....	77

9. 중국의 무술과 한국 태권도의 심미적관계	87
10. 한국조청사기 법률구조대안은 없을까	97
11. 한글발전에 공헌한 조선족학자 — “한글발전유공대상”수상자 류은중교수	106
12. 우리는 희망의 “까레이스끼”	112
13. 가자, 절승경개 칠보산으로...	122
14. 동북아 엘리트양성중심대학 꿈꾼다	130
15. 범이 사람을 해쳤나 사람이 범을 해쳤나 — 악덕사냥군의 용노에 걸린동북호랑이 구급 살기.....	139
16. 연변축구팀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시절	148
17. 주인 잃은 연길인민체육장과 그 “파장”	154
18. 최은택 교수 “축구는 정신력이 원동력” — 고 전 연변오동축구팀 감독 최은택교수님의 명복을 빌면서	161



민족의 부흥과 언론인의 사명

연변대학에서 신문과를 설치하고 조선민족의 언론인을 본격적으로 양성하는것은 중국 200 만 조선족 더 나아가서는 150 여년의 이주력사를 갖고있는 한개 민족으로서 획기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의 적지 않은 대학에는 한어로 가르치는 신문방송학과가 수풀처럼 있지만 우리 말로 된 신문과가 연변대학에만 설치되었다는 점은 연변대학이 명실공히

민족인재양성요람으로, 향후 조선족의 제반 부흥과 발전에 큰 작용을 놓것이라는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선(한)글로 신문과를 공부하거나 현재 수백명의 조선족들이 언론사업에 종사하고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족언론인으로서는 사명감을 가지는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족의 부흥과 언론을 론하기전에 한개 민족언론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 이 개념이 뚜렷하지 않으면 당연히 마음속의 민족기둥이 무너지게 되고 마음속의 민족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자연히 민족문화의 뿌리가 무너지게 되고 따라서 민족언론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된다. 이러할진대 한창 언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나 또 현재 언론에 종사하는 일군으로 볼 때 이 개념이 뚜렷하지 않으면 언론인으로서의 “가치중립”을 잃게 되고 나아가서는 편파적인 글들, 더 나아가서는 사이비글들이 독자들과 대면하게 된다. 이른바 가치중립이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지니고있는 중요성과 의의 그리고 역할 등에 대한 평가를 중립적인 차원에서 평가한다는것이다. 중국은 다민족국가인것만큼 민족간의 모순 특히는 주류민족 한족과 소수민족간의 모순이 존재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이런 모순의 완화에서 가치중립은 그 어떤 언



론인 특히 민족언론인으로서 매우 중요함을 넘
두에 뒤야 한다.

1, 언론인의 직업적인 성격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직업은 그 특수한 사
회적인 환경속에서 구체적인 실천론리를 찾는것
이 당연하며 사회생활의 기능분화와 분화된 기
능들의 조화로운 통합을 위해 사회윤리체계에 합
당한 직업론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은 저그만치 56개 민족이 살고있는데 각
소수민족은 당연히 자기의 리익을 주도로 한다.
특히 중국공산당이 민족정책을 펴에 있어서 소
수민족에게 많은 우대정책을 주고있는데 이는 세
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우수한 민족정책
이라 하겠다. 이 민족정책은 바로 소수민족의 리
익을 수호하자는것이다. 민족의 리익에 손해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앞서서 폭로해야 하는 직
업이 바로 민족언론이다. 왜냐하면 민족언론이
야말로 자기민족의 실태를 잘 알고 또 나라의 민
족정책을 잘 알기때문이다. 이 점에서 조선글로
된 흑룡강신문의 사훈은 “민족의 리익을 수호하
고 민족의 리익을 대변한다”이다. 민족의 리익
이란 절대 타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리익을 말하
지 않는다. 반대로 민족의 리익이 제대로 체현
되면 타민족에게 리익이 간다는것이다. 즉 “내

가 잘되면 다른 사람도 잘될수 있다”는 철학적인 개념이다. 여기에서 특히 설명하고싶은것은 타민족의 리익을 해치면서 자기 민족의 리익만 챙기는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민족은 물론 타민족도 해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점이다.

언론인으로서 직업정신은 그 직업을 수행할 능력에 근거하지 않을 때 사회적인 가치를 잃게 된다. 그래서 민족언론인의 직업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연변대학에서는 바로 신문학과를 설치하고 대량의 민족언론인을 양성하는것이다. 그러나 직업정신은 언론인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전문직으로 평가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요인의 하나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게 된다.

언론인에게는 특히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정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언론인이 전문적인 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천적인 자질과 전문직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직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면서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자기수련과 교육훈련 그리고 탐구활동을 해야 하기때문이다.

언론인으로 볼 때 기자의 직업을 살펴보자. 기자는 사태의 본질을 파헤치고 탐색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판단하여 이를 독자들에게 평이하면서도 더욱 가치중립적으로 전달할수 있는 능



력을 키워야 하고 어느 특정분야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조선글로 된 신문을 두루 살펴보면 연변일보, 길림신문, 료녕조선문보, 흑룡강신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외에도 주간신문들이 있고 또 연변방송국 등 방송사도 있다. 이렇게 우리 말과 글로 된 신문사와 방송사가 있는데 왜 적지 않은 독자들이나 청취자들이 이렇게 많은 신문들을 보지 않거나 방송청취률이 낮은가 하는 문제이다. 비교적 통용된 언어로 말하면 조선글로 된 신문이나 조선말로 방송하는 방송은 볼것이나 들을것이 없다는것이다. 독자나 청취자들의 얘기를 빈다면 한어로 된 신문이나 방송에서 소식들이 더 빠르는데... 그렇다면 민족글과 민족어로 된 신문이나 방송은 다만 한어를 모르는 독자나 청취자를 대상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는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조선족 독자나 청취자들이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돌리고있는가 하는것이 바로 민족언론인의 사명감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 오늘의 현실에서 뚜렷하게 나오고있다. 그러므로 민족기자가라 하게 되면 또 민족언론사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민족에게서 생기는 문제점,리의 부당한 점, 민족정책락착에서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등의 이런것들을 속